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8

1998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마가복음 · 레위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8

1998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마가복음 · 레위기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지역사회 봉사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소서.
4. 김창인 원로목사님, 김성관 위임목사님, 남녀 교역자들, 당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5.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6.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고, 날로 부흥하는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7.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이 맡은 바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소서.
8.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9. 단기 선교와 농어촌 전도 사역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져 풍성한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소서.
10. 계속되는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하소서.

세계에 뿌려지는 복음의 말씀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충현의 성도들과 젊은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해외 선교지와 농어촌 낙도 오지 등으로 떠나는 것을 생각할 때, 온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씨앗이 심겨지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친히 거두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달은 저에게 매우 의미깊은 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위임식을 통해 위임목사로 세워지면서 온 충현의 성도들과 함께 오직 복음만을 외치며 전하자고 다짐한 달이 바로 지난 해 8월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년이 지났습니다. 인간적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한없이 부끄러운 것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강단을 순수하게 지켜가신 것을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충현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이끌어가시는 교회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앞으로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생명의 진리를 사수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충현의 모든 가정과 구역, 각 부서와 기관들에서 계속하여 능력있는 말씀이 묵상되고 증거되고 실천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1998년 8월

위임목사 김성관

충현의 만나

1998년 8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레위기 서문

레위기는 모세(1:1, 4:1, 5:14 등)가 출애굽한 지 약 1년 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법규를 기록한 책으로서(25:1-2, 26:46, 27:34), 출애굽기의 사상을 진전시키고 있다(출 25:22).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북스러워하는 책이다. 그러나 레위기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레위기가 사랑스러운 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레위기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쳐흐르는 책이다(레 17:11, 히 9:22, 13:12).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다(출 19:6).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레위기의 중심 사상은 "희생, 속죄, 거룩(성결)"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속죄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 '성결한 삶'이다.

레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11:44-45, 19:2)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레위기의 핵심장은 11장이 된다. 레위기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5대 제사(1-6장)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삭 봄절기),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삭 가을절기)과 같은 각종 절기들(23장),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 회년과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규례들(24장)이 나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모든 제사들과 절기들은 모두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어진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제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다.

레위기 전체 내용은 희생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결(1-10)과 성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11-27)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내용 흐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1-10)

제사규례(1-7)

번제(1)

소제(2)

화목제(3)

속죄제(4-5)

속건제와 제사절차(6-7)

제사장규례(8-10)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8)

아론의 제사장 직무수행(9)

제사장직의 불의(10)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11-27)

성결법(11-15) : 음식(11), 출산(12),
문둥병(13-14), 유출병(15)

속죄일(16)

거룩한 삶(17-27)

백성들의 성결(17-20)

제사장과 제물의 성결(21-22)

성회의 성결(23-25)

약속과 경고(26-27)

† ...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0:31)

마가복음 9장을 끝으로 3차에 걸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마감되고, 마가복음 10장부터는 예수님의 후기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본장에서는 갈릴리 사역이 끝난 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까지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발생했던 사건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12절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교훈을, 13-16절에서는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을, 17-31절에서는 재물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 거침돌이 된다는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2절에서 보여 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대적자들의 핍박은 예수님의 사역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더욱 노골화 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문제로 유대인들이 주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했을 때에 결혼의 신성함과 영구성에 대한 원칙론적인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결혼의 본질적인 의의를 밝혀 주셨으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비유를 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특히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따라 갑시다.

▶ 기도 제목 / ① 환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의 온 것은 ...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10:45)

마가복음 10장 1-31절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세번째 예고(32-34절), 야고보와 요한의 질문(35-40절)에 이은 예수님의 대답(41-45절), 그리고 바디메오의 치유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제자의 길과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제자의 길은 너무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길이 예수님께는 인류의 대속을 위한 희생양으로 자신을 드리기에 위한 고난의 길이었지만, 제자들에게는 정치적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승리의 행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왕으로 즉위하실 때 자신들도 높은 지위에 앉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또 그들 상호간의 경쟁심과 견제 심리를 노출시키기까지 했습니다(35-41절).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세속적인 야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련의 대화를 통해 천국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며, 천국에서는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44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이 종의 신분으로(빌 2:7)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 의자를 둘러 앉으시며 』(11:15)

본 장에 이르러 예수님의 사역은 또 한번의 전기를 맞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 10장에서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십자가의 수난 및 부활에 이르기까지 일주일간의 각종 사건들이 상세하게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11-15장은 시간적으로는 불과 일주일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수난받는 종의 기사 중 절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써 마가복음 전체의 삼분의 일의 분량에 해당됩니다. 1-10절에서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와 성전 청결사건,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기도에 관한 교훈과 권세에 대한 논쟁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11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에 관한 계시가 있었지만, 그것은 훗날 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육간에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열매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 때에 그 나무가 말랐으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이 매매하는 장소와 강도의 굴혈이 되었을 때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매매하는 상을 엮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좌정해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나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주님 앞에 언제나 부끄러움 없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성도가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성령충만함을 허락하소서.

“...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12:10)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유대교 지도자들의 예수님께 대한 음모가 절정에 치달게 된다는 점을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이 점을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고하기에 앞서서 개괄적으로 먼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본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먼저 1-27절은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층간의 충돌을 묘사하고 있으며, 28-37절은 부활에 대한 교훈을, 이어서 38-48절은 본장의 결론적인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이 결론부에서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탐욕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심과 아울러(38-40절)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진실되고 전폭적인 헌신을 보여 준 한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41-4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구약계시를 가장 먼저 받은 선민이요 축복받은 백성으로 자처하면서도 유대교의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를 주님은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메시아 신분에 대한 논쟁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민족만을 정치적으로 구원해서 지상에서 최고의 만족을 줄 메시아로 생각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과오는 우리도 동일하게 범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약속의 자녀들이며 구원받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지혜, 경험, 지식을 의지하지 맙시다.

▶ 기도 제목 / ① 십자가만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13:33)

본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유대인의 묵시문학적 특성으로 인해 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교훈은 당시 제자들에게 '제자훈련'을 위한 말씀인 동시에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교훈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문단에서는 종말에 관한 예언과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에 관한 교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은 종말에 나타날 징조에 관한 예언을, 9-13절은 종말에 핍박을 직면했을 때에 굳센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교훈을, 14-27절에서는 대환난과 주의 재림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예언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28-37절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성할 것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종말은 먼 미래에 있는 어느 고통스러운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바로 오늘의 시대가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 끝날이 언제 이를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절대로 미혹되어서는 안되며, 어떤 난리 소문이나 환난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서 참아야 합니다. 실로 종말은 신앙인에게는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의 때를 지혜롭고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따라간다면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시대를 분별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언제나 깨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4:6)

오 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장례를 예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했던 한 여인의 섬김과 주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나드”는 인도에서 나는 향인데 왕에게 선물로 바치는 매우 값진 것으로서, 당시 노동자의 10개월 수입과 맞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이것을 부어드림으로써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내게 어느 정도 소중합니까?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후세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성경과 교회의 역사에서 신앙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마음에 새깁니까? 그 선배들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9절)?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주님과 교제하며 경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이 경비지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년치 급료에 해당하는 돈을 허비한다고 분노한 가롯 유다가 그 금액의 삼분의 일 정도밖에 안되는 액수에 주님을 판 것은 그가 평소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 줍니다. 나도 재물에 욕심을 내어 신앙을 팔아 먹고 있지는 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내 소유를 주님을 위해 바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14:72)

주 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러는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확인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언해 줄 사람들은 모두 떠나버리고 홀로 남으셨지만 자신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밝히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하고 있는 공회원들은 자신들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실 예수님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혈기만 강했지 심령이 유약했던 베드로의 허물을 미리 말씀해 두신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자신의 연약과 허물을 깨닫고 회개토록 하시기 위함이었습시다.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나는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죄지은 자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딤후 3:16). 나는 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합니까? 잡혀서 굴욕을 당 하시는 예수님이 결코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참람하다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롱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시험해 보지 않습니까?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말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충동적인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기도로써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불과 몇 시간만에 살기등등하던 혈기가 사라져 버리고 예수님을 세번씩이나 부인하는 연약함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이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15:37)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제6시(정오 12시)와 제9시(오후 3시)와 같은 정확한 시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타락한 인류의 대표로 섰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사망이라는 극심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실제로 죽으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게 하셨습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히 10:19, 20). 예수님께서는 육체가 찢기는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성도들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는 줄로 오해한 사람들은 엘리야가 어려움에 처한 의인을 구해 준다는 민간신앙에 따라 예수님이 구원받는가를 보려고 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미신적인 신앙에 비추어 해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제자들이 도망가고 오히려 감추어졌던 신자들이 십자가의 중인이 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신앙을 고백하면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감당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 두시는 분입니다.

- ▶ 기도 제목 / 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16:6)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될 만큼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와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나 무덤이 더 이상 주님을 붙잡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역사적인 사실로 믿으면서도 부활은 신화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은 철저히 아버지의 계획에 맞추신 것이므로 한 치의 오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재림과 영생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무덤이 돌로 막혀 있을 줄 알면서도 무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일이 불확실하게 보이더라도 주님을 위해 모험적인 발걸음을 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서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내가 내딛어야 할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거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놀라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교훈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신분이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씀에서 손쉬운 도덕적 교훈이나 심리적인 위로만을 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16:15)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음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증인은 수도 없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혼백이 나타난 것으로 간주하려는 이단의 술책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란 바로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어느 지역까지 전파 되도록 관심을 쓰고 있습니까?

17, 18절에 나오는 이 표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통해 이 표적들이 나타나는 사람은 그런 표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지 마치 자신이 능력이라도 있는 양 과시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표적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온 우주의 절대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의 권세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심지어 악한 영적 권세들도 주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 ▶ 기도 제목 / 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17)

출애굽기의 끝은 성막의 봉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뒤를 잇는 레위기는 이 봉헌된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 그냥 나갈 수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나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출 19:21-24).

공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용납할 수 없기에 그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할 제물이 필요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소개되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은 인간의 죄악을 대신하여 희생당해야 되는 제물들이었습니다. 이 짐승들은 여러 절차를 통해서 불살라져서 연기로 하늘에 올라가는데 이런 희생제물의 철저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함께 바친 사람도 받으시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제물에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며 제사장은 피를 단 주위에 뿌리며 제물의 더러운 부분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제물 전체를 불에 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간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죄악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고 죄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유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철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번제는 예수님의 죄인을 위한 철저한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철저한 희생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며 보좌 앞에 나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 (2:1)

본 장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규례의 일부로써 소제에 대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리는 법, 4-10절에서는 요리된 가루 음식으로 제사드리는 법, 11-13절에서는 소제물에 첨가할 것에 대해서, 14-16절에서는 첫 이삭으로 소제를 드리는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제는 여러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소제라는 원어는 선물, 예물, 공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채소, 과일, 기름, 곡물의 소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가 밭에서 거두어 들인 곡물 가운데 자신의 성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진정한 제사는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운 가루의 형태로 제사를 드리는 소제는 우리 인간의 거칠고 일그러진 성품을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복종시켜 순전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물질과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헌신은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본문의 소제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순종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자신의 거칠고 모난 성품이 깨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3:1)

화 목제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회복하다, 보상하다, 속죄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즉 죄를 용서함 받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가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시키는 화목제에서도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희생의 피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근본적으로 죄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 양, 염소의 제물로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이한 것은 번제(제물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린 사람은 아무것도 제물에 대해서 가질 수 없었지만 화목제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나누어 가졌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의 관계를 위해서 드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제사의 순서상 죄를 속하는 속죄제,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 충성과 정결의 표현인 소제에 이어 가장 마지막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곧 죄사함을 받고 헌신과 정결의 삶을 다짐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축제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통하여 신앙생활은 더 활기있고 성숙해집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 (4:3)

속죄의 뜻을 살펴보면 ‘덮다, 감추다, 진정시키다, 감정을 풀다, 죄를 갚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죄는 다시 말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자기의 실수에 대해 용서를 받고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혹은 화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에는 반복해서 이 일을 한다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속죄제가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습니다(히 9:28).

속죄제는 화목제와는 다르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입니다. 화목제와 비교해서 설명을 한다면, 화목제는 꼭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의무가 없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제물도 각자의 생활 형편에 따라 스스로 택해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속죄제는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범죄자의 신분 에 따라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제물도 정해진 대로 드려야 합니다.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속죄제물로 흠이 없는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범죄했을 때에는 제사장이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속죄제는 범죄한 개인이나 회중이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며 죄를 용서함 받는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졌지만, 예수님은 친히 속죄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속죄제물이 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죄를 사하시려 친히 속죄제물이 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4:23)

한 지파의 우두머리 보다는 한 가문의 우두머리인 족장이 부지중에 죄를 범하고 죄악을 깨달았을 경우에는 수염소를 제물로 드려 속죄제를 드립니다.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에는 흠없는 암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 너무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라도 속죄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평민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시는 하였지만 죄 용서함에는 반드시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 피흘리는 제사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 규례를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범한 사람의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값이 나가는 제물을 드려야 되었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범죄함에 대한 책임이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교훈입니다. 모세는 단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는데 그 결과 아주 엄한 책망을 받았고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민 20:12).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중한 직분을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 값을 치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 값을 치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범죄함은 더 중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은혜를 아는 사람의 죄는 더 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무서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5:6)

본 단락은 4장에 이어 속죄제 규례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다루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부지중'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길을 잃다' '실수하다' '비틀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단락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허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1-6절), 가난한 자를 위한 규례를 다루고 있고(7-10절), 국민자를 위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11-13절).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허물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침묵한 죄(1절)와 도덕적인 면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한 허물(2, 3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무심중에 하는 성급한 맹세(4절)의 허물이 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세 가지 허물에 대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5,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의가 아닌 실수나 무지로 인하여 저질러지는 죄에 대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7-13절). 능력이나 형편이 안될 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두 마리로 드리는 속죄제(7-10절)와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속죄제에 대하여서도 제시합니다(11-13절). 이것은 속죄제에 담긴 하나님의 공평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빈부의 격차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사 55:1).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물질로 시험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이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 올지니 ...”(6:6)

본 문에서는 속건제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 또는 이웃의 권리와 재산에 대해 보상하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속건제의 제물로는 두 서너 세겔 이상 나가는 숫양이 요구되었으며 자신이 침해한 성물이나 이웃의 물건에 대해 그 본물과 그것의 1/5에 해당하는 벌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처럼 속건제는 배상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4-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범죄를 다루고 있는데 숫양을 속건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물건에 1/5를 더하여 배상금으로 제사장에게 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배상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화해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마음의 사죄뿐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여호와와 금령을 범한 자의 속건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17-19절). 이 경우는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하나님의 금령 중 하나를 어길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금령’이란 여러 규례와 제도, 그리고 지시 사항 등 성문화된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지중은 전혀 고의가 없으며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더욱 경계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는 남의 것에 대해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해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6장 2절에 보면 이웃의 것에 대해 손해를 입히는 것을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6:21)

레 1:1-6:7까지 5대 제사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친 후 모세는 제사장을 대상으로 하여 각 제사의 규례를 특징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번제와 소제 그리고 속죄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번제에 대한 규례 가운데 불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8-13절). 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이 본문에서 세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번제의 불은 성도들이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불에 죄악이 날마다 태워져야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소제에 대한 제물에 대하여 14-23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소제에 대한 것은 '향기로운 냄새'로 특징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15, 21절). 드리는 소제의 제물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고 주의를 경각시키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고 하며,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24-30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속죄제의 제물에 대한 특징은 '거룩'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의 희생이 지극히 거룩하다고 표현하며(25, 29절), 그 제물은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26절), 피가 묻으면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라고 말합니다(27절).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죄로부터의 분리됨을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향기롭고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처럼 향기롭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7:1)

인간이 저지르는 죄는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첫번째는 하나님이고, 두번째는 인간입니다. 만일 이 각각의 대상을 향해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맞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범한 죄를 용서받으려면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사람에게 범한 죄를 사함 받으려면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은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속건제에 있어서 제물의 성격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며 제물을 잡는 곳은 번제단 북편입니다. 피는 번제단 밑 여기저기에 뿌려야 하고 기름의 치리는 단에 불살라 드려야 합니다. 속건제에 있어서 제물에 대한 제사장의 뭍이 설명되고 있는데 기름과 단에서 불살라진 부분 이외에는 제사장의 뭍으로 주어집니다. 화목제에 있어서 희생의 규례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위함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특이하게 함께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규례가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1-14절에서는 화목제의 규례가 설명되어 있고, 15-21절까지는 화목 제물의 식사 규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제사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죄가 그대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신적 통치의 공동체 안에서 인간은 제사를 통하여 서로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연합되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참된 제사는 사람에게 죄의 용서와 관계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신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현지인 개척교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7:38)

오 늘의 본문뿐 아니라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된다고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22-27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름'으로 번역된 이것은 힘의 근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함입니다. 또한 피도 먹지 말 것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그 이유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류의 피는 바로 '생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므로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나 피, 이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8-34절까지는 화목제물 중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몫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사에 드려지는 예물은 짐승의 기름, 뒷다리 그리고 가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을 흔드는 요제(30절), 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드는 거제(32, 34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제물은 바로 제사장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도록 하셨습니다(34절).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35-38절까지는 제사제도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사에 대한 규례와 종류, 그리고 제사장과 그의 직분 등 제사에 대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소서. ② 안석렬 선교사(수리남)가 진행하는 인디안 선교에 필요한 교회와 진료소를 건축하게 하소서.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8:12)

1 -7장까지는 모든 제사와 제사의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8장에서는 제사를 주재할 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크게 둘로 나뉘지는데 첫째, 제사장이 될 사람들을 씻기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며, 기름을 바름으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성별합니다. 둘째, 성별된 제사장의 위임식을 행합니다. 제사장으로 성별될 자들은 먼저 물두멍으로 가서 정결의식을 행합니다(6절). 이 정결의식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로써 영육의 성별을 의미합니다. 그후에 세마포로 된 속옷과 그 위에 청색옷을, 또 그 위에 에봇을 입히며 흉패를 걸치고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의 판결패를 넣었습니다(7, 8절). 그리고 제사장들의 머리에 관을 씌우는데 그 정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정금으로 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9절).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제사장의 머리에 관유를 부어 성별의식을 마무리 합니다(10-13절). 이러한 제사장의 성결의식은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으로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계 7:14) 성령의 기름으로 성화되는(요일 2:20)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때 성별된 자를 제사장으로 임직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는 속죄제, 번제, 요제, 화제입니다(14-29절). 속죄제가 먼저 드려지는데(14-17절) 그것은 앞으로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릴 제사장 자신과 제단을 정결케 하는 제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이십니다.

- ▶ 기도 제목 / 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게 하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가 진행하는 성경공부를 통해 현지인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9:23)

위 임식을 마친 제사장은 이제 백성들을 위한 공적인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2절). 이것은 위임받은 제사장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선 중보자가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정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 제물로 드렸습니다(레 4:13-21). 제사장들의 이 사역은 그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의 피로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히 9:11-15, 12:24).

속죄제 다음으로 드려지는 번제는 정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헌신의 결단이었습니다. 번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은 송아지나 흠없고 1년된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헌신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짐스런운 일이 아니라 구원함을 얻어 거룩하게 된 백성들만의 특권이요 명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물을 봉헌하고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23절). 이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仲保)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가 원주민 선교에 전념할 수 있게 하소서.

“... 여호와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10:1)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한 그날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첫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제사를 드리다가 족석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체가 진 밖으로 버려짐을 당했습니다(5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제사장 직무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경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급하신가를, 또한 반드시 벌할 자를 찾아 벌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시 78:21, 22).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의 자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인간의 지혜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높이 드리며 두렵고 떨림으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자신의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8-11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도 거룩하시기를 원하십니다(레 11:45).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거룩을 닮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캄보디아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 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 여호와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1:45)

하 나님과 교제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본장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한 짐승들을 식용으로 취하지 말 것을 보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용으로 취할 수 있는 짐승은 굽이 갈라진 짐승, 또 새김질을 할 줄 아는 짐승입니다(3절).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도 거룩할 것을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45절).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요 8:47).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백성들과는 구별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의 구별의 기준이 바로 이 거룩에서 찾아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식만 구별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몸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요 4:24).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벧후 3:11-12).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모든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자신에게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칠일 동안 부정하리니 ...』(12:2)

구약시대에는 여인이 자녀를 낳으면 그 출혈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2절). 출산으로 말미암는 고통은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입니다(창 3:16). 그런데 남자 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7일 동안, 여자 아이를 낳으면 이칠일, 즉 14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과도 접촉할 수 없는 기간이요 성소에도 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7일 기간이 지나면 제8일에 남자 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 곧 성결의식을 행합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첫안식일이 지난 날로써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새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할례의식을 통하여 아들을 온전히 여호와께 봉헌한다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의 할례를 통하여 아이의 모친의 부정한 기간의 종식이라는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피의 유출기간 동안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레15:19). 그렇기 때문에 7일이 지나면 부정함은 지나가지만, 정결케 되기를 위해 삼십 삼일을 기다렸다가 성소에 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아를 낳았을 경우는 육십 육일이 지나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으며 성물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4, 5절). 이제 여인들이 정결케 하는 기간이 차면 번제를 위하여 일년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으로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6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사업을 통해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소서.

찬송 / 186장 본문 / 레 13:1-59

“... 피부에 무엇이 돌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13:2)

문둥병 진단에 관한 규례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문둥병은 원어로 ‘차라아트’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문둥병(한센병)보다 훨씬 광범위한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피부병의 일반적 증세인 종기, 부스럼, 색점, 피부 함몰, 체모 탈색 등이 나타나면 일단 ‘차라아트’로 보고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9-17절은 만성 문둥병, 18-23절은 종기의 뿌리가 피부 깊숙이 퍼지는 경우, 24-28절은 불에 덴 상처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29-37절은 머리카락에 피부병이 발병한 경우, 38-39절은 가벼운 피부병인 경우, 40-44절은 대머리에 붉은 반점이 발생한 경우, 47-49절은 의복에 발생한 악성 문둥병일 경우 각각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진단 결과 이상이 없으면 “정하다”, 이상이 있으면 “부정하다”는 진단을 하고 부정한 자는 진박에서 혼자 살도록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문둥병을 의사대신 제사장이 진단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문둥병을 질병으로 본 것이 아니라 부정한 저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를 징계하시는 방법은 다양한데 문둥병은 그 중 대표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일단 문둥병이 걸리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격리된 채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죄악의 문둥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보다 더 심한 병이 우리의 죄악이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죄악을 용서하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소서. ② 복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14:2)

본 문은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로 판명되었던 자는 다 나았다고 스스로 판단이 될 경우에도 스스로 깨끗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정결의식을 치러야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 즉 정결의식법은 제사장의 집전 하에 거행되었는데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차 정결의식은 제사장이 진 밖에서 행하는 것으로써 여러 가지 예식을 통해 일단 그 문둥병자가 정결해졌다고 공식 선포하는 의식이었습니다(1-10절). 이때 그 치유된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진 내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기 장막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어 7일이 지난 8일만에 제사장은 속죄제와 번제 희생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2차 의식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그 문둥병자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자의 정결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 단절된 채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죄악을 보혈로 정결하게 하소서. ② 남북이 피흘림 없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 속히 허락하소서.

찬송 / 417장 본문 / 레 15:1-32

...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15:2)

본 문은 유출병(流出病)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출병은 '계속 흘러 내리다' 라는 뜻의 '주브'에서 유래된 말로 성기를 통해서 정액, 피, 고름 등의 분비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12-15절은 성병에 의한 장기적인 유출병을, 16-18절은 일시적인 유출병을, 19-24절은 여자의 일시적인 유출병을, 25-30절은 여자의 심한 유출병을 각각 말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했습니다. 본인은 물론 눅는 상, 앉았던 자리, 접촉하는 사람, 탔던 안장, 손으로 만진 옷가지나 그릇 등 무엇이든지 부정했습니다. 부정한 것은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옷은 빨고 몸은 물로 씻고 그릇은 깨뜨려야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저녁때가 되어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보면 유출병은 문둥병보다 가벼운 것같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눈은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숨길 수 없습니다. 불꽃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십니다. 만약에 부정한 사람이 자기의 부정을 깨닫지 못하고 거룩한 성막에 들어간다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31절).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든 작든, 외적인 불결함이든 내적인 불결함이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심각한 것임을 알고 늘 정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 무엇을 하면, 하는 모든 일은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아와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으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큰 죄나 작은 죄, 외적인 죄나 내적인 죄가 모두 심각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작은 죄 큰 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죄를 온전히 뉘을 수 있게 하소서. ② 낙도와 오지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 (16:3)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소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켜야 할 속죄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을 때마다 속죄받기 위해 속죄제를 드렸으며 속건제로 죄에 대해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인된 인간이므로 하나님 앞에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 죄지은 것을 잊고서 속죄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일년에 한번씩 특별히 모두 속죄일을 지킴으로써 그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씻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날을 ‘속죄일’ 이라고 합니다.

먼저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속죄제물인 수송아지와 번제물인 숫양이 있어야 했고 몸을 씻은 후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또 아론 자신과 권속들을 위해 수송아지를 드려 속죄하고 염소 두 마리를 준비하여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 제비뿔아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의 귀신이라 일컬어지는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냈습니다.

속죄일은 새로운 제도가 세워질 때까지만 적용되는 규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제사 제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곧 희생제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그러나 ‘완전하게’ 지성소에 들어가 해마다 드리던 속죄일의 모든 의식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무시로 하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일의 모든 제도는 완성되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보혈을 의지하여 무시로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소서.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16:29)

계속해서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20-22절에 등장하는 염소는 8-10절에서 본 바와 같이 미리 준비한 두 염소 중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말합니다. 아론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먼저 안수하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전가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의 모형이 됩니다. 안수한 후 그 염소를 광야의 아사셀 그러니까 광야의 귀신에게로 돌려 보냈는데 죄악의 장본인인 귀신에게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사셀 염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갔던 사람은 부정을 입어 더러워진 몸이었으므로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야 비로소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속죄규례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괴롭게 하고 또 이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 앞에서 쓰라린 회개를 해야 하며 죄를 해결한 후에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속죄일은 일년을 주기로 반복되었는데 이것은 이 제도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피를 흘려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의 피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깨끗하고 완전한 보혈이기 때문에 그 피의 제사가 인간을 멸망에서 완전하게 구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죄일의 아사셀 염소였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의 죄를 지신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②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고백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17:4)

생 축을 잡는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생축을 잡을 때 진 밖에서 잡든지 진 안에서 잡든지 임의로 잡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회막 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와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화목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중앙 집권적인 삶에 충실하도록 함과 동시에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 신앙 공동체를 견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아무데서나 잡아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법계가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흩어져 우상을 세워 놓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당연시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위한 제물을 광야에서 죽였습니다.

생축을 잡을 때 피를 먹어서는 절대 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맨 처음 이 규례를 명하셨는데 피는 생명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모든 제사 때마다 피를 뿌리거나 발랐는데 이는 생명을 바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생명을 바침으로 다른 생명이 대신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시해 주는 규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의 피를 마시라고 가르치셨는데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속죄함을 얻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생명을 살려 주셨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8월에도 함께 하신 주님, 9월에도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서 문

마가복음은 일반적으로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좀 더 단순하고 짧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별다른 설명이 없이 나열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왕, 사람,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마가 역시 나름대로의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당하는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또한 자기 백성의 본으로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최초 독자들이 네로 황제 치하에서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겪으시고 승리하신 사건에 참여하는 전초전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바울과 바나바의 일차 전도여행에 동행했던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는 일차 전도여행을 중도에 포기하는 미숙함을 드러내었으나 이후로는 신실한 사역자로 섬기는 일을 계속함에 따라 복음서의 저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바울의 말년에는 바울에게 가장 유익한 동역자 중 한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AD 55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요내용

1:1-13 광야에서 - 복음의 시작

1:14-3:6 갈릴리에서

1:14-2:12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2:13-3:6 예수님의 교훈의 시작

3:7-6:6 갈릴리 바다 주위에서

3:7-35 확대되는 사역

4:1-34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

4:35-6:6 악의 세력에 대한 사역

6:7-9:13 갈릴리 건너편에서

6:7-8:26 질문 - 예수는 누구인가?

8:27-9:13 대답 -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9:14-10:52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 제자들을 훈련시키심

11:1-16:8 예루살렘에서

11:1-12:44 도전과 웅전

13:1-37 감람산 설교

14:1-15:47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16:1-8 예수님의 부활

16:9-20 후기

제 1 과

마가복음(1)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만나기

찬 송 / 218장

읽을 말씀 / 막 1-4장

공부할 말씀 / 막 1:35-38

미리 생각하기

예수님은 사역초기부터 매우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질병과 신체적인 장애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당시의 형편에 비추어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는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다니시며 가르치실 제자들을 선발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 하나 하나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들로 대충대충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온 우주의 관심이 집중된 일이었고, 에덴동산의 비극 이래로 준비되어온 하나님의 거둬하신 사랑의 모든 무게가 실려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의미심장하고 과중한 일들을 처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조금의 서두르심이나 부담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쉬임없이 철저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지!' 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그 비밀을 발견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겸손히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신 때는 언제입니까?(35절 상반절)
2.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35절 하반절)
3. 누가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까(혹은 찾아 나섰습니까)?(36절)
4.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37절)
5.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38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하는 보고를 드림으로 예수

남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됨으로 자기들의 스승의 인기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명료했습니다. '다른 데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요청과 그들이 부여하는 인기와 제자들의 인간적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는 긴밀한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일들을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1. 나는 무엇에 따라 행동하는 편입니까? 빈도수가 많은 순서로 번호를 매겨 보십시오.

- 1) 기도와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된 일 ()
- 2) 불현듯 생각난 '급한 일' ()
- 3) 아내나 남편 등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의 부탁 ()
- 4) 그때 그때의 기분에 따라 하고 싶은 일 ()
- 5) 내가 세워놓은 계획표 ()
- 6) 기타 ()

2. 하나님께 기도하고나서,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받은 은혜의 경험이 있으면 누구든지 간증해 주십시오.

제 2 과

마가복음(2)

세례 요한

찬 송 / 397장
읽을 말씀 / 막 5-8장
공부할 말씀 / 막 6:17-29

미리 생각하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의 모든 세대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마 11:11). 그는 짧지만 너무나 인상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불현듯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메뚜기와 석청, 그리고 가죽옷으로 표현되는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방식과 날카롭고도 뜨거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와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제자로 입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시후 헤롯의 윤리적인 타락을 정면에서 지적한 권위 모독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계집아이의 춤바람에 미혹된 권력남용꾼 헤롯의 지시로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짧은 인생을 보면서 아쉬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의문을 품어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어째서 그토록 허무하게 죽었어야 했던가? 그가 헤롯의 도덕적인 타락을 지적한 것은 혹시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자기의 사명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었

을까? 광복절을 맞으면서 세례 요한이 감당한 사역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봅시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17절)
2.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이유는 무엇입니까?(18절)
3. 헤로디아는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19절)
4. 헤롯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20절)
5.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24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결국 세례 요한은 한 여자 헤로디아의 미움과 그녀가 꾸민 용의주도한 계획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륜으로 맺어진 권력가의 아내에 의

해 저질러진 세례 요한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과정을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이후에 기록할 예수님의 죽음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우유부단함에서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엿보이는 것입니다. 한편,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필시 도덕적인 거룩성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눅 3:7-14). 세례 요한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들은 예외없이 거짓과 권력의 남용에서 벗어나 깨끗한 사랑의 수행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헤롯의 사악한 범죄를 지적한 것은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의 충실한 실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광복 53주년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10여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주심으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머물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1. 나는 개인과 가정의 성결을 위해 무엇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1) 성결을 위해 하고자 하는 일들

2) 성결을 위해 하지 않고자 하는 일들

2. 자신이 속한 사회(가정과 직장과 국가 등)에서 힘을 가진 자의 부도덕과 잘못을 지적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때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제 3 과

마가복음(3)

하나님과 재물

찬 송 / 399장

읽을 말씀 / 막 9-12장

공부할 말씀 / 막 10:17-22

미리 생각하기

우리 모두가 입술의 고백과 온몸으로 보이는 믿음의 실천 사이에서 다소 고민스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추천될 수는 없겠으나 고민한다는 면에서 아름답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껏 나를 움직인 힘이 믿음이 아니라 내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이기적인 욕심'이었다는 사실이 불현듯 드러나는 당황스런 순간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불안합니다. 그 잘못된 동기가 결국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우나 행여라도 드러날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될까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불행한 것은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알팍한 속내를 다 아는데도 정작 본인은 자신이 믿음 가운데서 매우 잘 해나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불행한 경우입니다. 위선자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지만, 사실 현대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부자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번째의 경우를 공부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길에 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한 사람이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그의 태도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17절 상반절)
2. 그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다?(17절 하반절)
3. 예수님께서 그에게 제시하신 십계명에 대하여 그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20절)
4.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신 두 가지 명령은 무엇입니까?(21절)
5.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22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라고 부른 청년을 향해 예수님은 '네가 어찌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라고 대답하셨습

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셔서 선택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참된 선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그 말을 그렇게 쉽게 쓰지는 못할 것이다.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움직이는 궁극적인 힘이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넉넉한 재산으로 인한 안전의식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는 자부심과 재물을 포함하는 영생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영생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재물에 미련을 두는 한 청년은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1. 내 수입의 몇 퍼센트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10% 2) 30% 3) 50% 4) 100% 5) 기타

그렇게 대답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십일조외에 내 수입의 얼마만큼을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3. 자신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믿음으로 승리한 간증이 있으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4 과

마가복음(4)

책망과 사명

찬 송 / 349장

읽을 말씀 / 막 13-16장

공부할 말씀 / 막 16:14-16

미리 생각하기

경험이 많아지고 지식이 쌓여갈수록 의심도 많아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선뜻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간혹은 약간 의심하면서 상대를 대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안전할 뿐이지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심했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어떤 안전장치를 두어서 '되도 그만이고 안되고 그만'인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이라도 부딪히리라고 각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붙어서 하나님의 눈과 가슴을 소유하여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함께 서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 책망의 와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주셨

습니다. 오늘도 의심많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믿음의 길을 견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봅시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음식을 먹고 있는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14절)
2. 예수님은 '믿음없는 것' 이 어떤 상태라고 말하셨습니까?(14절)
3.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신 후,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15절)
4. 제자들이 받은 복음의 사명에는 어떤 권위가 부여되었습니까?(16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들었습

니다(막 16:10-11). 그 후에 엠마오로 간 두 제자를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다 믿지 않았습니다(막 16:13-14). 저자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불신을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그들의 거듭되는 불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부활의 역사가 자기들의 눈 앞에서 펼쳐진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고, 마음이 완악했습니다(막 16: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고귀한 사명을 허락하심으로 믿음으로 섬기는 기회를 다시금 허락하셨습니다.

1.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2. 나의 믿음은 '자신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려는 생각'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3. 나의 약한 부분으로 인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감히 전도하거나 봉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 경험은 없습니까?
4. 불신으로 인한 심한 낭패와 자신감의 상실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이 나를 일으키신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주십시오.

MEMO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typical of primary school writing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